

조국 사퇴 vs 조국 수호...진영 대결로 번진 與野 장외투쟁

민주당 “거대한 촛불 물결, ‘검찰개혁’ 시대적 사명임 선언”

한국·바른미래 “나라, 둘로 쪼개져...文대통령이 기름 부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이 여야의 진영 대결로 번진 모양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을 하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조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진영 장외투쟁에 가세하고 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적폐청산연대)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부근 도로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고 조 장관 수호와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석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집회는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같은 날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대

전, 광주, 제주에서 ‘文정권 헌정 유린 규탄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집회를 잇따라 진행했다.

한국당 지도부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무대에 선 연사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정부·여당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황교안 대표는 대구, 나경원 원내대표는 창원, 조정래 최고위원은 부산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다.

바른미래당도 표면적으로는 한국당과의 연대를 거부했지만, 순학규 대표를 주축으로 매주 광화문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원내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나 원내대표와 연대하면서 해임건의안 등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보수진영에서는 다음 날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투

쟁을 준비 중이다. 집회에는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뿐 아니라 흥준표 전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보수진영이 대거 집결하는 장외투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당시만해도 공정과 정의의 문제점으로 쏠렸던 조 장관 논란은 연이은 장외투쟁과 맞물려 진영 대결로 번지면서 여야가 핵심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진보층까지 다양하게 형성된 조 장관 임명 반대 민심이 진영 대결에서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진보진영의 집회에 대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폭주에 보다 못한 국민이 나섰다”며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고 평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촛불문화제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실치를 촉구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대구·경북 합동집회'에 참석해 한국당 TK의원과 함께 촛불을 밝히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준엄한 자성과 개혁 요구 앞에도 이렇듯 않는 검찰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일 뿐”이라며 “오로지 자기조직을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똥니도 검찰과 한편을 지체하며 개혁을 막아서는 정치세력도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 대검 앞은 분노로 분열된 국민 간의 전쟁터였다. 부정과 비리의 집합체로 판명난 조국으로 인해 매우 처절하고 극렬하게 나뉘었다”며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대한민국이다. 해외에서는 평화를 말하면서 국내에서는 정쟁을 부추기니 기가 막힌 일이다.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한

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서로를 마주보며 열렸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변호하고 검찰을 비판함으로써 국민 분열에 기름을 부은 셈”이라며 “지치세력만 보고 가는 통치는 국민 보편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에 의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등 퇴진과 탈당결심 굳힌듯...바른미래, 분열 가속화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결국 ‘분당’ 수순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순학규 대표 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퇴진파가 손 대표와 더는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

그동안 탈당설 등 당내 현안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유승민 전

대표는 지난 28일 ‘젊은 의사 포럼’ 초청 강연에서 “바른미래당에 와서 이런저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깊다”며 “결심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순학규 대표 체제에 대한 실망

감을 표출하며 지도부 교체를 요구했지만 손 대표가 ‘오지부동’하자 탈당 결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바른정당 출신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손 대표 체제에 대해 문제가 많다. 이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며 “다만 구제적

등이 해당 상임위원 사·보임까지 강행하며 밀어붙이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이후 퇴진파인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추석이 지난후에도 추석 전 지지율 10% 달성 실패시 사퇴하겠다는 손

유승민, 전날 강연서 “결심해 행동 나설 것” 탈당가능성 시사
10월 탈당설엔 “एं터리”... 늦어도 연말까진 가시화 전망

인 탈당 시기·방법과 과연 탈당이 정당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의 탈당 논의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부터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당 소속 의원 과반 가까이 반대한 신속처리법안 지정은 손 대표와 김관영 전 원내대표

대표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총선 전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자 탈당 논의는 재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바른미래당은 지난 27일 손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와 퇴진파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긴급의총이 동시 열리는 등 사실상 양분된 당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지상욱 의원은 의총에서 손 대

표를 겨냥,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정치인으로서 리더십도 없이 오로지 본인에 정치적 이득만 있는 분”이라며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을 계기로 새로운 바른미래당의 지도부가 구성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유 전 대표 역시 정례적 모임 참석 여부에 대해 “이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같이 바른정당계의 탈당이 가시화된 가운데 키포인트는 안철수 계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보다. 현재 안철수계로 분류되며 바른정당계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은 재선의 권은희 의원(광주·광산)을 포함 이태규, 신용현, 이동섭, 김중로, 김수민, 김삼화 의원 등 7명으로 권 의원은 제외하면 모두 비례대표이다.

만약 손 대표 등 당권파가 이들을 출당조치 하지 않는 한 이들은 당적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당내 퇴진파쪽으로 기울어진 안철수계가 바른정당계 탈당 이후 당내에 남아 있을 경우 당내 분란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출당 조치 가능성에도 힘이 실

리고 있다. 또다른 관심사는 탈당 시기다. 유 전 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10월 탈당설에 대해 “एं터리”라며 탈당에 대해서도 “결심을 굳히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유 전 대표 등이 탈당 결심을 굳힌다고 해도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모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위원장 및 당원들에게 당내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10월 탈당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유 전 대표 등이 탈당 결심을 굳히면 탈당은 늦어도 연말까진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탈당을 두고 시간을 끈다면 총선 준비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유 전 대표와 함께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시점이다. 안철수계의 행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국 안 전 대표 귀국 이후로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안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 유 전 대표 등 만나 힘을 다시 합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셨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험료	급여비	비율
1.1배	240,833원	1.1배
1.7배	125,531원	1.7배
2.1배	79,147원	2.1배
2.7배	48,103원	2.7배
5.3배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약속해주세요.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칙의 안전 보강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임박해 되었습니다.
-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